

2) 성조암(聖祖庵)

숙종 때에 한 승려가 초가(草家) 일동(1棟)을 지어 목불(木佛)을 안치(安置)하고 수도(修道)하던 곳으로, 1979년에 마을이 수몰되면서 주인2리인 중리마을로 이迁했다.

3) 장재산(長在山, 藏財山)

고려시대에 어느 사람이 장재산(長在山)에 밭을 약 10정(町) 개간하여 부자(富者)로 살았다 하여 장재산(長在山, 藏財山)이라 하였다.

제29절 하당리(下塘里)[속명 : 당가리(塘街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개머리산과 원당(元塘) 말래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쳐 울진 남대천으로 흐르고 정림3리(井林三里)와 인접하였으며, 서쪽은 악구산(岳丘山)과 구산들을 지나 두천1리(斗川一里)와 접하고, 남쪽은 나그네재(嶺)와 구석들이 있다. 북쪽은 원당(元塘)에서 물이 흘러오는 수구(水口)와 섬바우들, 세들, 중평(中坪)이 있다. 북면사무소 하당출장소가 위치하며, 2003년에 건립된 마을회관과 하당보건진료소가 있다. 부구초등학교 삼당분교가 있다. 삼당분교 어귀에 ‘십이령등금쟁이’ 놀이를 전수하는 십이령커뮤니티센터가 조성되어 있으며, 해마다 이곳에서 십이령등금쟁이축제가 펼쳐진다.

2. 마을의 역사

1700년경에 성황당(城隍堂)을 많이 설립하면서 마을 이름을 당가리(塘街里)라 하였다. 그 후 행정구역 개편 때에 하당리(下塘里)라 개칭하였다. 중당(中塘)은 원당(元塘)과 당가리(塘街里)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므로 중당이라 불렀으며, 1700년경에 김해 김씨(金海金氏)와 영해 박씨(寧海朴氏)가 다래 넝쿨을 걷어내고 전답(田畓)을 만들어 개척했다고 전해진다. 김해 김씨(金海金氏)가 모시는 성황당(城隍堂)이 있다.

3. 가구 분포

총 66세대가 거주하며 김녕 김씨(金寧金氏), 경주 이씨(慶州李氏), 담양 전씨(潭陽田氏),

김해 김씨(金海金氏), 울진 장씨(蔚珍張氏), 남양 홍씨(南陽洪氏), 영해 박씨(寧海朴氏) 등이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구암(丘岩)들

1700년경 중당(中塘)에 김해 김씨(金海金氏)와 영해 박씨(寧海朴氏)가 세거하였는데, 영해 박씨 중에 부자(富者)가 많았다. 자연 부자(富者)집에 손님이 많이 찾아들면서 가산(家産)이 점차 기울 무렵 스님이 찾아와 ‘마을 앞에 솟아있는 암석(巖石)을 깨어버리면 다시 재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일러 마침내 돌을 제거(除去)하였으나, 오히려 흉년(凶年)이 계속되고 가운(家運)이 기울어 다시 암석(巖石)을 원상대로 세웠으나, 옛 부귀는 되찾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마을 초입의 하당교 우측에 당시 이 마을의 유력 성씨들이 구성한 친목계를 기리는 비석 1기가 서 있다. 이 비석의 전면에는 ‘先巖癸未同庚契追慕碑’라고 새겨져 있으며, 뒷면에는 ‘담양 전상수, 신안 주회룡, 울진 장세호, 영양 남석화, 광산 노유중’ 등 계원들의 이름이 새겨있다. 1933년경 이들의 후손들이 세웠다고 전한다.

2) 십이령커뮤니티센터

삼당분교 어귀에 등금쟁이 놀이를 전수하는 십이령커뮤니티센터가 조성되어 있다.